



포커스 ①

**아프리카 대륙으로
확대한 북핵 공조
및 대북 압박 외교**
황 규 득 소장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 | | |
|--|--|--|
| <p>▶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p> | <p>▶ 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p> | <p>▶ 통일로 통하는 즐거움!</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커스 아프리카 대륙으로 확대한 북핵 공조 및 대북 압박 외교  통일 돋보기 시속 430km VS 45km 남북한의 철도 비교  Today 남북 해외파견 노동자 19만, 북한의 외화벌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에 대한 관심은 '북한을 아는 것'에서 부터 시작"  통일 Talk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해외 각지에서 최선을 다 할래요!  좌충우돌 남한적응기 연예인 사인은 돈 받고 파는 건가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느낌 있는 여행 이제 조금 더 행복해져야겠다 경상북도 경주  통일 웹툰 애들아 ~ 우리 숨을 내기하자!  통일 레시피 장맛비 오는 날엔 '감자 뜨더국' 드세요! |

 **웹진앱**을 설치해보세요
웹진 이용 GUIDE



| | | | | | |
|--|--|--|--|---|---|
| <p>통일 플러스</p> <p>포커스 ① 포커스 ② 통일 돋보기</p> | <p>통일 스토리</p> <p>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 Talk</p> | <p>남북공감</p> <p>Today 남북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p> | <p>민주평통365</p> <p>제17기 해외지역회의 제17기 국내지역회의 NUAC 뉴스</p> | <p>즐거운 통일</p> <p>느낌 있는 여행 통일 웹툰 통일 레시피</p> | <p>심포, 느낌표</p> <p>이벤트 당선작 이벤트 ① 이벤트 ② 이벤트 당첨자 발표</p> |
|--|--|--|--|---|---|



아프리카 대륙으로 확대한 북핵 공조 및 대북 압박 외교 황규득 소장(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5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국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서 1982년 전두환 대통령, 2006년 노무현 대통령, 2011년 이명박 대통령에 이은 역대 네 번째 아프리카 순방이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 본부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아프리카와 대등한 관계를 토대로 한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연합(AU)에서의 연설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확대와 개발협력과 문화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를 추진하였으며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아프리카 각국의 지속적 지지와 적극적 동참을 호소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대폭 확대하였다. 따라서 이번 순방은 한편으로는 하위정치(low politics) 차원에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과 코리아 에이드를 통한 소프트 외교적 접근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정치(high politics)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압박의 대 아프리카 하드 외교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로 이어진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은 북한과 이들 아프리카 국가 간 네트워크 차단 측면에서 북핵 해법 중 하나의 실마리를 찾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통적으로 에티오피아와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및 교류를 최근까지 해 왔던 나라들이다. 첫 번째 방문국인 에티오피아는 과거 냉전시기에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구 소련제 무기들을 북한에서 수입해 왔으며, 북한과의 무기거래와 금수품목인 사치품을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두 번째 방문국인 우간다는 최근까지 북한과 군사 및 경찰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김일성 생전에 평양을 세 차례나 방문하며 반식민지 투쟁과정에서 북한의 지원을 받았던 대표적인 아프리카 친북국가로 꼽힌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천명하였는데, 에티오피아의 경우 아프리카 내 외교무대의 중심국가로서 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역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위한 공조를 약속하였다. 또한 우간다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안보·군사·경찰 협력 중단을 전격 선언하고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이행 방침을 밝혀 북에 큰 충격을 안겼다. 마지막으로 이번 순방으로 케냐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박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천명하였는데, 에티오피아의 경우 아프리카 내 외교무대의 중심국가로서 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역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위한 공조를 약속하였다. 또한 우간다는 5월 29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안보·군사·경찰 협력 중단을 전격 선언하고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이행 방침을 밝혀 북에 큰 충격을 안겼다.

마지막으로 이번 순방으로 케냐는 지난 1~2월 북한의 도발 행위에 규탄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간다 및 에티오피아와 국방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군사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북한이 이들 지역을 군사협력으로 공략해왔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 국가와의 국방협력은 북한의 대북제재·압박 회피를 차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순방으로 대북압박 외교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비록 우간다가 대북 관계에서 안보, 군사 및 경찰 협력에 대해서는 중단을 선언하였으나 전면적인 외교관계를 단절할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이번 순방국에서 제외된 아프리카 국가들 중 적도기니, 앙골라, 콩고 민주공화국, 부룬디 등은 여전히 친북 국가들로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냉전 시기에 우세했던 정치이념보다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보다 중시되는 탈냉전과 세계화의 시기에 북한보다는 남한이 아프리카와의 외교전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북한과 냉전기 당시에 공유했던 정치·문화적 및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단시일 내에 친북 아프리카국가들이 반신식민주의와 반제국주의의 이념적 측면에서 북한과의 수교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실질적 협력 관계를 청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제재조치 등 압박 및 고립외교만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의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현실주의적 대북 압박 및 고립외교와 더불어 다양한 접근 방식들의 접목이 함께 요구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연합(AU) 연설에서 강조했던 아프리카의 해적퇴치, 평화유지군(PKO) 확대,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척결 등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구축 사안을 국제안보 차원에서 북핵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아프리카와 한반도 문제가 서로 이질적인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긴밀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학습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단기적 접근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외교가 보다 큰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연합(AU) 연설에서 강조했던 아프리카의 해적퇴치, 평화유지군(PKO) 확대,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 척결 등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구축 사안을 국제안보 차원에서 북핵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아프리카와 한반도 문제가 서로 이질적인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긴밀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학습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단기적 접근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외교가 보다 큰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협력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번 박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경제분야에서 모두 7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건설, 에너지, 플랜트 등 총 12건에 해당하는 28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섬유산업, 우간다는 농업, 케냐는 에너지 인프라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3개 국별 맞춤형 경제협력 성과를 도출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대북 압박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사실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연합(AU)에서 강조한 호혜적(reciprocal) 경제 관계는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를 의미하지만, 불리한 교역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는 본질적으로 대등하고 동등한 관계 형성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포스트 로메(Post-Lome)¹⁾ 협정 시기인 새천년 이후 서방세

계가 아프리카와의 무역관계를 비호혜적 관계에서 호혜적 관계로 전환하면서 신식민주의적이고 신제국주의적인 차원에서 무역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서방세계가 아프리카를 단순히 원료를 포함한 1차산품의 공급지로서만 인식하여 접근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종속적 및 수탈적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아프리카의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을 통한 실질적인 상생협력 관계의 발전 의지를 밝힌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 아프리카에서 대북 압박외교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법은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 및 군사협력을 통한 현실주의적 접근 방식과 함께 보다 다각적이고 신축적인 외교지평의 확대적 접근 방식들을 활용해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의 인식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 및 확산시킴으로써 대북 압박외교를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1) 1975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된 로메(Lome) 협정은 과거 유럽공동체(EC, 현재 EU) 회원국들이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지역국가(ACP)들에게 비호혜적 관계를 강조한 특혜무역 협력체제임. 2000년6월 23일 아프리카 베냉의 수도 코토누(Cotonou)에서 양 그룹 간 새로운 무역협력체제를 수립하였는데, 이 시기를 포스트 로메(Post Lome) 협정 시기라 불림. 포스트 로메 협정 시기에는 WTO의 무역협력규정 하에 비호혜적 관계에서 호혜적 관계로의 전환을 강조한 무역의 자유화 조치로 과거에 제공했던 특혜 무역관세의 제공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됨.

〈사진.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우리의 대응

김영호 교수 (국방대)

북한은 지난 6월 22일 사거리 약 3,500km로 알려진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4월15일 첫 시험발사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의 실패 후 여섯 번째 만에 거둔 성공이다. 물론 2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과연 이전 다섯 차례의 실패에 대한 얼마나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이번 시험발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이번 실험발사는 원래 사거리인 3,500km를 목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발사각도를 높여 탄두가 1,400km 고도까지 올라갔다 가 400km를 비행했다고 한다. 원래 사거리대로 발사해서 실패할 경우 일본 열도에 추진체 잔해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고각발사를 통해 탄두의 낙하속도를 높임으로써 무수단보다 사거리가 길고 속도가 훨씬 빠른 대륙간탄도탄(ICBM) 탄두의 재진입 기술을 시험해보기 위해서란 설명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 듯하다. 만약 이 설명이 맞다면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는 말이 된다. 참으로 엄중하고 우려스런 위협적 상황이다.



북한은 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가?
 첫째로 정권의 치적을 쌓아 내부결속을 강화
 둘째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대외적 과시
 셋째는 미국과의 협상재개를 노린 압박공세의 일환

그렇다면 북한은 왜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한 전례 없이 높은 강도의 국제적 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6차례에 걸친 무모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실험을 강행한 것일까? 일차적으로는 대내적 결속을 다지기 위함일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5월 7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핵 병진정책의 변함없는 추진을 공언했지만, 실제로 경제발전의 가망성은 그리 높지 않다. 게다가 작금의 국제적 제재강화는 북한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군사적으로라도 정권의 치적을 쌓아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시험을 추진했을 수 있다.

둘째는 대외적 과시 때문일 것이다. 국제사회의 어떠한 비난과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곳곳이 갈 길을 가겠다는 고집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힘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을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게 과시하고 추후 관련 무기와 기술의 판매 가능성까지도 노렸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미국과의 협상재개를 노린 압박공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對美 협상을 수차례 제의한 바

있다.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인정받고,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이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발전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명해 보이면서, 미국에게 핵보유 사실 인정과 평화협정 체결을 더욱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속셈에서 무모하게 발사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은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이다.
그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은 튼튼한 안보태세의 확립이다. 감정적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건 별로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실현가능성을 차지하고라도 그럴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북한과 똑같은 불량국가로 취급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보다 구체화하고 가시화하여 핵억지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미사일방어에 대해서는 미군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리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및 억지 전력체계인 Kill Chain과 KAMD의 조기구축에 힘 쏟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공세적 방어력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한국형 비대칭전력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미 중국, 러시아, EU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성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고, 아프리카와 중동의 친북성향 국가들 중에서도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말 그대로 '국제사회 對 북한'이라는 제재구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북한이 정말로 아픔을 느끼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태이블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지속적이고 꾸준한 압박이 요구된다.

대북제재의 목표는 정권붕괴나 체제몰락이 아니라 비핵화이다.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을 가지는 것이 북한의 안위를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고 대외적 고립도 더욱 더 심화시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서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반도의 평화나 통일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이 점을 이해하길 기대해본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시속 430km vs 45km 남북한의 철도 비교

‘우린 기차타고 유럽간다!’

아직은 꿈의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부산에서 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망을 잇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실현될 경우, 우리의 생각과 활동범위는 드넓은 대륙으로 무한대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은 바로 통일, 그리고 노후화된 북한 철도를 개보수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철도 및 노선 정보를 담아봤다.

■ 남북한 철도속도 비교



남한 최고시속 430km(운행속도 300km)



북한 평균시속 45km(국제선)

■ 북한의 국제선



■ 남북한 철도 총 연장길이



남한의 철도 총 연장길이는 **3,590km(2014)**



여객수송
담당비율
4%



화물수송
담당비율
2.3%



북한의 철도 총 연장길이는 **5,300km(2013)**



여객수송
담당비율
60%



화물수송
담당비율
90%

※ 북한의 교통·물류는 철도의 이용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여객수송의 60%, 화물수송의 90%를 차지하는 반면, 남한은 상대적으로 철도 이용 비중이 낮아, 여객수송의 4%, 화물수송의 2.3%를 담당하고 있다.

■ 남북한을 잇는 철도



※ 남북한을 잇는 철도는 경의선의 개성과 문산구간, 동해선의 감호와 제진구간이다. 경원선의 경우 우리 구간은 백마고지역까지 완공된 상태이다.

※ 출처 : 통일연구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통일에 대한 관심은 ‘북한을 아는 것’ 에서부터 시작”

영화 ‘태양 아래’ 배급한 허은도 명보아트 시네마 대표

‘아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알면 관심 있게 보고, 관심이 생기면 직접 행동으로 나서고, 행동하다 보면 결국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의 현실을 바로 알고, 통일의 필요성을 ‘아는 것’에서부터 통일의 발걸음이 시작된다.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 독립예술영화들을 주로 국내에 선보여 왔던 허은도 대표(명보아트 시네마)가 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를 처음 접했을 때, 그는 이 영화가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게 해 주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Q. 평양 시내를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

‘태양 아래’는 진미라는 8살 아이가 조선소년단에 가입해 ‘태양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오랫동안 유럽 독립영화를 수입배급해 오다 보니, 좋은 영화가 있으면 항상 먼저 보내주는데, 1년 전 독일에서 보내온 영화가 바로 ‘태양 아래’였어요. 처음 영화를 봤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겁도 좀 났어요. 그 전에도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는 여러 편 있었지만, 이 영화만큼 평양 시내를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준 영화는 없었거든요. 북한이 단순히 ‘할벗고 굶주린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되고 감시받는 거대한 세트장 같다는 느낌을 주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봐야 할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Q. 영상 촬영 후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매일 호텔 문을 소파로 막아놓고 잠들었던 이유?

비탈리 만스키 감독은 러시아와 북한의 요청으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 북한 당국이 모든 시나리오를 각색하고 왜곡하며 검열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왜곡된 모습, 그 이면을 보여주는 쪽으로 제작방향을 선회했어요. 고발다큐멘터리로 바뀐 거죠. 북한 당국이 최신 디지털 메커니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의도한 장면을 몰래 촬영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었죠. 무섭고 불안했습니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이닥칠까 봐, 항상 문을 소파로 막아놓고 잤다고 해요. 어떻게 영상을 북한 밖으로 반출했는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촬영팀을 도왔던 내부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 듯해요.





영화 '태양 아래' 스틸 컷

Q. 북한은 전체가 거대한 세트장, 영화 속 진미의 눈물에서 느껴지는 자유의 소중함?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진미의 눈물을 이야기해요. 저도 클로즈업된 화면에서 진미가 눈물을 똑똑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울지 말고 대신 좋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말에 '잘 모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는 시를 외워보라'고 하니 까 소년단 가입 선서를 기계적으로 외우는 장면에선 서늘한 공포심마저 일더라고요. 훈장을 주렁주렁 단 노병이 초등학교에서 '놈'이라는 말을 써 가며 사상교육을 하는 장면도 충격적이었고요. 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말처럼 '현재의 삶 외에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평생 그런 자유를 가져본 적도 없는 이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보는 건, 백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큰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Q. 아는 사람은 잘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영화?



영화에 대한 해외영화계의 반응은 매우 좋아요. 빌뉴스 영화제, 홍콩국제영화제, 지라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심사위원상, 최고상 등을 수상했고 이달부터는 미국에서 상업영화로도 개봉해, 미국과 캐나다 15~30개 도시에서 상영될 예정이에요. 러시아를 제외한 동유럽권 역시 많은 나라들의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됐고요.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해외 여론이에요. 이번 노동당대회에서 주인공 진미를 '화동'으로 불러 세운 것도 이런 해외 여론이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영화가 세계인들에게 많이 소개될수록 진미와 가족들은 더욱 안전해질 수 있어요.

현재 태양 아래 국내 관객수는 3만2천 명 정도로, 다큐멘터리 장르치고 나쁜 성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UN 대북제재 등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언론에 영화가 자주 오르내렸는데도, 정작 극장에서는 상영관을 내주지 않다 보니 시사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는 분들 외에는 이 영화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주 잘 알거나 전혀 모르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공포물이나 성인영화도 아닌데 심야와 이른 아침, 두 타임에 영화를 걸면 어떻게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겠어요?

Q. 모 학교 중학생들에게 무료로 '태양 아래'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장르가 장르이니만큼 흥행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북한과 통일에 관심이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의 손을 이끌어 극장에 데리고 와주길 바랐죠. 영화계 사람들은 IP TV를 통해 공급하거나 DVD로 출시하면 어느 정도 큰 수익은 남길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저는 극장상영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마지막 클로즈업 화면인 진미의 눈물은 큰 스크린에서 봐야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일반국민, 특히 학생들이 꼭 보길 바래요. 얼마 전 충북 음성군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이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고 하기에 무료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에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요.

Q. 해설과 영어자막을 입힌 '태양 아래'의 또 다른 버전 재상영?

개봉한 지 한 달 보름가량 됐는데도 주목도 대비 관객수가 많지 않아,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의미는 있지만 어렵고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 해설판을 제작했어요. 통일MC 김희영 씨가 내레이



션을 입혔는데 지루한 느낌이 사라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영화 말미에 나오는 '발걸음'이라는 노래는 왜 만들어졌으며, 왜 아이들이 불러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죠.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영어 자막판도 상영할 계획입니다.

가끔 어떻게 해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영화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큰 행운인지, 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영화가 말해주거든요. 딱딱한 교육보다는 영화와 같은 문화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는 힘이 세니까요. 제2, 제3의 진미가 눈물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더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글.사진 / 기자회견>

가장 비밀스러운 나라
가장 화제가 될 영화!

태양아래

— UNDER THE SUN —

4월 27일, 2014년 최초 개봉! CH2014

태양아래 영화 소개 영상 보기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해외 각지에서 최선을 다할래요!

해외지역회의 자문위원 참가자 토크 재구성

중국의 근대 문학가 루쉰은 그의 작품에서 '희망'을 땅 위의 길에 비유했다. 본래 땅 위에 길은 없었지만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곧 길이 된 것처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희망이 된다는 뜻이다. 머나먼 타국에서 '통일'이라는 길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해외자문위원들. 통일이 현실로 이뤄질 때까지 현재 거주 국가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해외자문위원들의 활동과 각오를 토크방식으로 재구성해봤다.

7월 토크참가자



장영식 협의회장(일본중부협의회, 11·13·14·15·16·17기)

일본에서 67년 전에 태어났으며 활짝 웃으시는 유머 감각 최고의 나고야 한국학교 이사장님. 한국학교에서 교포 4~5 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도록 돕고, 일본인들에게도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임광수 지회장(남미서부협의회 파라과이 지회, 10·11·15·16·17기)

1986년 이민, 2000년부터 8년간 한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10년 전 1.5~2세대 기성세대 간 다리역할을 하기 위해 청년들을 한인 커뮤니티에 대거 유입시켰는데, 이제는 그 청년들이 사회 곳곳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정도현 청년위원장(중국 광저우협의회, 15·16·17기)

인구 1억2천만 중국 광저우에서 '아빠 어디가?(광저우판)' 등 3개의 TV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만능엔터테이너이자 한중문화교류사업가. '찾아가는 통일교실'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통일을 알리고 있다.

박유식 청년자문위원(일본동부협의회, 14·15·16·17)

민단 청년회중앙본부 회장. 조부의 일본 이민으로 3세에 해당하지만 정작 본인은 한국에서 출생. 청년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재일교포 사회 분열과 남북통일 문제 해결에 핵심 키워드라고 믿고 있다.



홍솔비 청년자문위원(캐나다 토론토협의회, 17기)

초등학교 졸업 후 가족과 함께 이민, 현재는 세금전문 회계사로 일하는 토론토협의회 최연소(28세) 자문위원. '6.25 참전용사 인터뷰' 사업을 준비하면서 한국역사를 깊이 알게 됐고 통일 활동에 더욱 열정을 갖게 됐다.

청년 네트워킹 구축 등으로 해외자문위원 간 거리 가까워져

e-행복한 통일 : 올해 해외지역회의 어떠셨나요?

박유식 청년위원 :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도 좋았지만, 특히 이번엔 해외지역 (청년) 자문위원들 간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어 좋았어요. 프로그램 중에는 '통일 토크콘서트'가 재미있었어요. 전문가들이 친근하고 오픈된 방식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게 새롭더라고요.



경도현 청년위원장 : 저 역시 이전 해외지역회의에서는 지역도 다르고 서로 잘 몰랐기 때문에 교육만 듣고 가곤 했는데, 지난 3월 두바이컨퍼런스 이후 청년자문위원 '단톡방(단체카톡방)'을 개설해 네트워킹을 이어나가다 보니, 반가운 마음으로 회의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의 청년자문위원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홍솔비 청년위원 : 많은 해외자문위원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회의인 것 같아요. 통일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돼, 주류사회 캐나다인들에게 통일문제를 알리는 일에 자신감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장영식 협의회장 : 오늘 강의와 업무보고를 들어보니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라는 근본적인 관점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 등으로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으니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됐어요. 일본은 차세대들의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자문위원들이 더 자주 모여서 의논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하겠다는 생각으로 회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임광수 지회장 : 고려대 박길성 교수님의 한류 강연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 빠른 시간 안에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덕분이었다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또한 통일 토크콘서트를 통해 탈북전문가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더욱 크게 실감할 수 있었어요.

나라별 여건에 맞게 활발한 통일 사업 펼쳐

e-행복한 통일 : 협의회별 주요 사업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장영식 협의회장 : 3~4세가 중심이 된 재일동포사회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건 일본지역 전 협의회들의 필수과제죠. 우리 중부협의회 차원에서는 초중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역사와 통일에 대한 내용을 일본어 만화로 제작해 배포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나고야 한국학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데, 이 학교는 재일교포들이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자비로 지은 학교로, 현재 교포와 일본인들에게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홍솔비 청년위원 : 2017년은 캐나다 건국 1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저희 협의회는 이 시기에 맞춰 한국전 참전용사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서 이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진 전시회와 함께 주기적으로 통일 강연회 등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참전용사 인터뷰 영상이 완성되고 나면 이를 통해 캐나다인들에게 '한국과 캐나다 간 우호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한반도 통일이 세계 평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받은 6.25 참전 훈장이 항상 마루에 걸려있었는데, 그때 그 의미를 몰랐지만 통일에 대해 알면 알수록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 휴스턴 여성컨퍼런스

▶일본 나고야 한국학교 수업장면

경도현 위원장 : 중국은 통일 활동을 하기에 제약이 많은 나라예요.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모여 비판하려면 중국 정부의 눈치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주로 문화를 통해 통일을 알리고 있어요. 광주우협의회는 제5회 통일골든벨 대회를 치렀고 올해는 ‘찾아가는 통일교실’을 열어 학생들에게 역사·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통일마술을 보여줘요. 빈 종이에 태극기를 그리고 찢지만 완벽한 모양의 태극기가 펼쳐지고, 다시 돈과 실크 분수가 쏟아지는 마술이죠. 해방과 분단, 그리고 통일 후 대박을 마술로 형상화한 건데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임광수 지회장 : 파라과이지회는 남미서부협의회와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 국가로 구성된 협의회인 만큼 각자 보고 느낀 것을 공유하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돼요. 파라과이지회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짓기, 사생대회, 웅변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 8월 골든벨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지회에 걸 맞는 그런 행사를 이어나갈 겁니다.

박유식 청년위원 : 일본동부협의회는 매년 통일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의를 실시하고 있어요. 한일관계나 한반도정세가 어려워지면 재일교포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와요. 남북 간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서도 일이 생기곤 하죠. 따라서 일본지역 자문위원들 모두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전문가 초청강연을 유익하게 생각해요. 청년 사업으로는 오는 9월,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18~35세 청년 300여명과 함께 모국방문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유식 청년위원

🌸 교포 청년세대의 통일인식은 ‘올바른 역사의식’에서부터



홍솔비 청년위원

박유식 청년위원 : 통일문제와 한일문제는 똑같은 원인에서 출발해요. 바로 역사인식이죠. 우리는 전쟁도 알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통과 눈물을 이야기로만 전해 듣는 세대예요. 따라서 청년들의 역사인식이 올바르게 서야 해요. 그것이 곧 힘이고, 통일의 에너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홍솔비 청년위원 : 토론토협의회는 25%가 청년위원들로 구성돼 타 협의회 비해 많은 편에 속해요. 보다 많은 재외동포 청년들에게 통일을 알리기 위해, 올 가을로 예정된 통일골든벨대회는 단순한 퀴즈대회가 아닌 청년 축제 한마당으로 치르려고 해요. 다함께 축제처럼 즐기면서도 ‘통일’이라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요.



장영식 협의회장

장영식 협의회장 : 얼마 전 한국학교에서 교육자대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20~30대가 자기 정체성을 찾고자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추세라고 해요. 그 뿌리는 한국인인 거죠. 하지만 문제는 청년들이 민단 등 기존 조직에 소속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양성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청년들 역시 이점은 알아둬야 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한 사람의 힘보다는 10명이 모이는 게 힘이 세다는 것어요.

🌸 파워풀 통일 대한민국, 이를 위한 해외 위원들의 역할

홍솔비 청년위원 : 통일비용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순 없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혜택이 돌아갈 거예요. 저희는 좋은 경제적 환경을 물려받았으니 통일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이뤄내야죠. 주류사회 사람들은 설령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남의 나라

일에 무관심해요. 이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려면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리고 통일은 공감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둔 통일편익을 제시하면 청년층의 공감대가 훨씬 더 커질 듯해요.

임광수 지회장 :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듣고 보고 교육받아왔는데 진짜 통일의 길이 쉽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죠. 통일을 위해서는 정부나 국민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해외 자문위원들이 통일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현지에서 통일지식을 전수해주는 통일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정도현 청년위원장 : 해외에서 18년 정도 거주하다 보니 '대한민국'이란 국가만 남지, 자연이나 학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 나라니까 좀 더 파워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서 인적 인프라와 문화 인프라를 가진다면 세상 어느 나라가 무섭겠어요? 동서독이 통일을 통해 강대국이 됐듯 우리도 강한 신념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해요.

장영식 협의회장 : 통일이 된다면 20~30년 사이에 인프라 투자비용이 500조엔 가량 들어가지만 되돌아오는 수익은 세 배에 이른다고 들었어요. 통일이 되면 시베리아철도를 통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고, 동아시아가 한국 중심으로 변형할 겁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올라가면 일본과 포들 역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요.



임광수 지회장

🌸 뱀부 실링을 넘어, 나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장영식 협의회장 : 재일동포 약 60만 명의 역사는 100년을 넘었고 수년 후에는 6세가 탄생해요. 많은 동포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차별과 싸우면서 살아왔지만, 한편으로는 그 정체성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를 위해 한국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4~5세대에게 한글과 한국역사 꾸준히 가르칠 계획입니다. 언제나 조국 한국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도현 청년위원장 : 현재 한중문화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야말로 중국에 한국을 알리는 첩병이라고 생각해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보여지듯 문화가 진입하고 그 뒤를 따라 상품과 서비스들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현재 광주에서 '아빠 어디가?' 등 3개의 TV 종합예능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면서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 유교문화를 알리고 있어요. 보람된 일로 생각하고 있고,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음악 콘서트 등을 통해 중국 거주 동포는 물론, 중국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겠습니다.



정도현 청년위원장



박유식 청년위원 : 저는 재일동포들을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일본-한국 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이를 위해 청년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홍솔비 청년위원 : 여성이나 아시안들에게는 '뱀부 실링(미국 등에서 아시아 국적이거나 아시아계 미국인의 고위직 상승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넘고 싶어요. 비전만 있지 않는다면 중요한 위치에서 사람들과 '디지전 메이킹'하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캐나다에서 일을 할 때 한국인이라는 배경이 이익이 되고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외파견 노동자 19만, 북한의 외화벌이

전수진 기자(중앙일보정치부)



염색한 긴 생머리에 스키니진을 입은채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가는 12명의 여성.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대한민국의 여느 20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4월 7일 입국한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집단탈출한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다. 이들의 입국 다음 날인 4월 8일, 정부가 공개한 사진 속 여성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세련된 분위기가 은연중 드러났다.

북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최신형 아이폰을 사용하고, 틈틈이 한류 드라마를 즐겨봤다. 그래서일까. 이들 중 일부는 “배우 송중기를 만나보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정부는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 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이들은 중산층 이상에서 선발된다”고 귀띔했다.

정부 추산, 북한 운영 식당 130개 안팎

이들이 일했던 닝보의 류경식당을 포함해 해외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은 130개 안팎이라고 정부는 추산한다.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중국·캄보디아·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과 러시아, 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 등 중동에 주로 분포해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듬해인 2013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해외 식당 수는 100여 개에서 130여 개로 늘어났다. 여러 기관이 외화벌이 주요 수단으로 해외 식당을 경쟁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해외 식당이 북한 당국에 외화벌이의 주요 창구로 쓰인다는 얘기도.

정부는 식당 한 곳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자금용으로 상납하는 일명 ‘충성자금’이 한해 약 30만 달러, 전체로는 최소 4000만~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수출 품목이 마땅치 않은 북한에겐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셈이다. 해외 식당 종업원들은 음식 서빙뿐 아니라 공연도 담당하는 데다 남측 손님 등을 상대하기에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 선발 과정에선 ▶출신 성분 ▶외모 ▶춤·노래 및 악기 연주 실력 등이 관건이다.



▲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류경식당(북한식당)

16개 국가에 5만 명 이상 근로자 파견, 연간 5만 달러 수입

그러나 북한이 인력을 해외로 보내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식당 운영은 일부에 불과하다. 아산정책연구원이 2013년 발간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6개 국가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금액이 많게는 연간 5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2월 중단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지급된 금액이 1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최대 다섯 배에 달하는 액수다.

광부·벌목공 등 단순노동 업무가 주를 이뤘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 외화벌이가 강조되면서 태권도 강사부터 미술 작가, 의사 등, 직종도 다양화하는 추세다. 식당 종업원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5만 명이 넘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대부분 3D(dirty, difficult, dangerous-지저분하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에서 일하게 된다. 각국에서 기피하는 업무가 북한 파견 노동자들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 임금의 80~90% 당국에 상납, 처우 및 인권 문제 심각

더 큰 문제는 근로자들의 처우와 인권 문제다. 작업 환경도 열악한 데다 노동임금의 80~90%를 북한 당국에 상납해야 한다. 2007년 쿠웨이트 건설 노동자로 파견됐던 한 탈북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돈(임금)을 주지 않고 종이에다 수표만 한다. 집에 올 때 주겠다고. 근데 안 줘요. 일은 너무도 힘들게 하고.” 근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다는 증언도 나온다. 러시아에서 일했던 한 탈북자는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했다”며 1년에 쉬는 날은 1월 1일 하루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판 노예노동인 셈이다.



▲ 외화벌이 독려구호



▲ 리비아 근무 북한 근로자 귀국

이러다 보니 해외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4일 “해외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북한 노동자수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두 112명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가 추산한 결과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한 달에 평균 7명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이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는 단순한 해외 인력 송출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인권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 일부 국가, ‘북한 근로자들 받지 않겠다’ 움직임도

국제사회에서도 일부이긴 하지만 북한 해외 근로자 문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생기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일부 국가들은 북한의 근로자들을 받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차단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각국 별로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예가 폴란드다. 건설·조선업 등에서 북한의 근로자를 받아들인 폴란드는 지난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 입국 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외화벌이 동아줄인 근로자 해외 파견을 더욱 강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윤여상 소장은 “북한 당국은 향후 수만 명의 인력 송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외화수급을 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한민족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북한 해외 근로자 실태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연합뉴스>

연예인 사인은 돈 받고 파는 건가요?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기말고사 시험. 탈북 대학생들은 익숙지 않은 전공용어, 낯선 분위기 속에서도 학점관리를 위해 여느 남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2008년 말 남한으로 와서 현재 법학과에 진학 중인 영아는 얼마 전 치른 기말고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미소를 한가득 머금은다. 초등학교 검정고시에서부터 시작, 아르바이트는 물론 엄마의 병간호까지 혼자 도맡아 하면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 만큼은 그 어떤 청년보다 강한 스물네 살 영아의 이야기를 2회에 걸쳐 풀어본다.

연예인 사인을 팔면 무얼 팔면 바뀐서 먹을 수 있나?

영아는 열일곱 살에 무연고로 남한에 왔다. 항상 웃는 얼굴에 밝고 씩씩한 영아에게 주변에서는 공부를 시작할 것을 권했지만 영아는 '무조건 돈부터 벌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엄마와 탈북했다가 혼자 남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를 모셔 오기 위한 돈이 필요했던 것. 무연고 탈북청소년을 돌보는 한 시설의 수녀님은 함께 방법을 찾아보라며 영아에게 아르바이트를 추천해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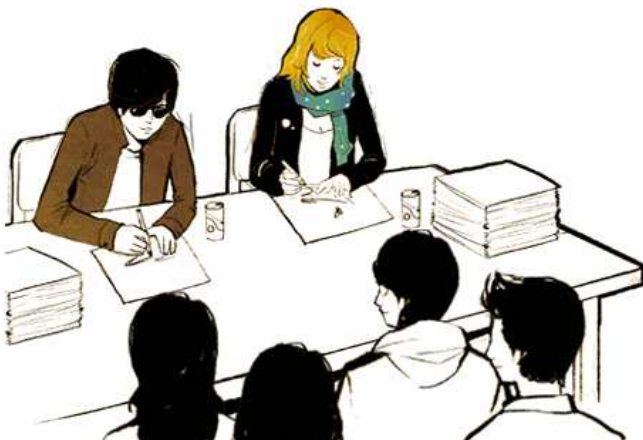
그렇게 시작된 식당 알바. 영아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은 방송국 근처 연예인들이 자주 들르는 음식점이었는데, 연예인이 올 때마다 함께 일하는 직원이 '가서 사인을 받으라며 영아의 등을 쿡쿡 찔렀다. 하지만 '연예인'이 뭔지도 몰랐던 영아는 유명한 남자 가수이자 탤런트인 L씨가 매장에 들어섰을 때 동료 직원에게 물었다.

"사인을 받아서 뭐해요? 그거 팔 수 있는 건가요?"

"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아. 유명한 사람이니까 사인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냐?"

궁금한 것 투성이었지만 결국 등 떠밀려서 사인을 받으러 간 영아. 가수 L씨는 둘 간의 대화를 들었는지 그녀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며 말했다.

"설마 저를 못 알아보았어요? 일부러 그런 거죠? 그렇지?"



당황한 영아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 '연예인', '탤런트'란 단어를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찾아보긴 했지만, 그래도 연예인이란 게 묘기나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치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방면으로 잘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선 배우나 가수들의 인기가 그 정도까진 아니거든요. 사인은 파는 게 아니라고들 했지만, 말은 저렇게 해도 사인을 가져가면 팔 수도 있고 그걸로 뭘 바뀐서 먹을 수도 있나보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영아는 당시 숙식을 제공하던 시설의 수녀님에게 물었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거(사인) 파는 거 맞죠?"

그러자 수녀님은 한참을 큰 소리로 웃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파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거지. 너도 곧 좋아하는 연예인도 생기고 남들과 똑같아질 테니 걱정 마. 넌 하나도 안 이상해.”

수녀님 말씀처럼, 영아는 얼마 전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여 가수 P씨를 보자마자 ‘아 연예인!’ 하며 금방 알아봤고, 사인을 받으러 쫓르르~ 달려가기도 했단다. ‘저거 뭐 값어치 있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 보면, 이젠 확실히 남한 문화에 적응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 가지 더, 영아는 친구들이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놀랐다고 했다.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와 누가 예전에 드라마를 찍다가 서로 사귀었고 이젠 헤어졌단다가, 어디 어디를 성형했다는 소문들을 듣게 돼요. 전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친구들이 그 연예인처럼 개인적으로 아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 ‘오픈북’으로 시험 보는 건 부정행위?

북한에서 거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던 영아는 엄마가 남한에 도착하자, 초등학교 과정부터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늦깎이 어르신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남한 사람들이 70~80년대에는 어떻게 살았고, 요즘에는 어떻게 사는지 일상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시기도 했고, 어르신들끼리 대화하는 내용도 자주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남한적응 공부였던 것 같아요.”

영아는 이후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법학과에 진학했고 비교적 높은 학점을 유지하고 있다. 탈북학생은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다 해도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졸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논술방식으로만 시험을 치는 학과에서 영아가 이처럼 높은 학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영아가 들려준 ‘오픈북’ 사건은 경쟁 사회에 금세 적응한 영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탈북민에 대한 우리의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2학년 기말고사 시험장. 영아는 교수님 강의를 녹음해 수차례 반복해서 듣고, 책을 달달 외워 시험장에 나왔다. 하지만 몇몇 문제는 아무리 애써도 생각이 나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앉은 학생이 교재를 탁 하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닌가. “책을 들이대고(?) 보는 건 부정행위잖아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죠. ‘저는 열심히 외워도 이것 밖에 못써서 제출했는데, 옆 학생이 교재를 보는 건 부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라고요.”

그런데 영아의 말에 교수님은 오히려 ‘오픈북이라고 한 말을 못 들었나? 중간고사도 책 없이 본 건가?’ 하고 물으셨다. 고개를 끄덕이는 영아를 보고 교수님은 무척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어디서 왔냐고, 외국인이나고 물으시기에 북한에서 왔다고 했더니, 탈북학생은 처음 보신대요. ‘교재를 봐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남한 사람에게는 오픈북이라는 말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참고하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다행히도 영아는 교수님의 배려로 시험을 다시 치렀고 A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영아는 자신이 일러바친 학생의 시선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다지만 적극적인 태도 덕분에 남북간 언어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됐다.

영아가 학점관리를 잘한 건 그녀만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밤새도록 컴퓨터로 과제물을 하다가 저장하지 않아 싹 날려 먹기도 했고, 모두 주관식인 법대 전공시험공부를 준비하기 위해 혼자 화장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중얼대며 공부한 적도 있다. 많은 내용을 빨리 암기하기 위해 생각해 낸 교육지책이다. “수업 전후에 제가 친구들에게 좀 황당한 걸 질문하곤 하는데,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면 ‘난 북한에서 와서 잘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면 친구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일단 사정을 알고 나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리포트 하나만 해도 남들 1~2시간이면 쓰는 걸, 저는 7~8시간 써도 원하는 만큼 안 나와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영아의 고향 청진은 바닷가 있어서 수산물이 유명하고, 제철소가 많아 철제품이 많이 생산된다고 한다. 북한은 전기 사정이 안 좋다고 하는데 청진 제철소는 멈춘 적이 없고, 군인 배급은 끊겨도 청진 제철소 노동자들의 배급은 끊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진항 또한 유명해서 일본 선박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기억이 있고, 중국 화교 또는 중국에 가족을 둔 사람들이 많아 화교들을 위한 중고등학교가 따로 있으며, 살림살이는 비교적 타 지역보다 부유한 편인 데다 문화 또한 다른 국경지방보 다는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청진의 가장 큰 자라는 바로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빠라 사건'이 가장 많이 터지는 곳도 청진 시내이고, 꾸준히 일본과 연락하면서 지내는 재일교포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반면 회령을 통해 도강을 했을 땐 앞뒤가 다 산이어서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학생들이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집집마다 비디오도 비교적 자유롭게 시청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듣는 내고향 이야기입니다.



일본·중국·캐나다·중남미 지역 제17기 해외지역회의 개최 5만리 먼 해외에서도 '통일 염원' 하나로 조국 찾아

민주평통은 지난 6월 20일(월)부터 23일(목)일까지 3박 4일간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등에서 제17기 해외지역회의(일본, 중국, 캐나다, 중남미)를 개최했다. '하나 된 통일의지 다가오는 평화통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제17기 해외지역회의에서는 일본, 중국, 캐나다, 중남미 지역 14개협의회 24개국 463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에는 다양한 대륙, 다양한 국가의 해외동포 자문위원들이 모이는 자리였지만, 두바이 청년컨퍼런스 이후 만들어진 네트워크 덕분에 청년자문위원들 간 친근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둘째 날에는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소식에 걱정 어린 모습으로 안보의식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21일 | 개회식과 업무보고, 분임토의 등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 핵 포기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의지'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위한 중국 자문위원들의 노력과 역할 △한일문제와 통일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있는 일본 자문위원들 △북핵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와 한목소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캐나다 자문위원들 △사회주의 국가 쿠바까지 활동영역을 넓힌 중남미 자문위원들 △먼 타국에서 통일 활동을 펼치는 남미서부 자문위원들의 통일 노력을 하나하나 상기시키며 그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대북 제재와 관련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도출해 냈고, 북한을 제재의 틀 속에서 변화시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후 대화하고 통일하는 게 목표"라며, "이 싸움은 의지의 싸움이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의장이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외자문위원들이 통일을 위한 이 싸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오공태 일본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에는 조총련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해와 대립 속에서도 일본지역회의는 확고한 안보의식과 통일관을 지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지역회의가 평화통일을 위한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동체의식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철 미주부위원장은 "석탄이나 장작 하나는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모이면 크고 오래가는 불길이 되어 타올라 수 있듯이 해외자문위원들의 거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때 통일은 더욱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창호 중국부위원장은 "강경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전 세계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혈맹'이라고 표현됐던 북중 관계도 점차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다"며 "회의기간동안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통일의지를 새롭게 가다듬은 뒤 각 지역의 동포사회와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통일정책과 의지를 전파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평화통일 준비 추진



▼ 조태열 외교부 차관



조태열 외교부 차관은 '평화통일과 신뢰외교 -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설명회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적 성과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지난 3년간에 쌓인 정상 간의 각별한 신뢰와 전략적 소통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자산이 되고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강력한 제재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일 때 대화와 평화통일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분임토의 발표 시간, 중국 일본 미주 중남미 남미서부지역 등 총 14개 협의회가 각각 분임토의를 진행한 후, 그간 추진했던 사업들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자문위원들은 국가별로 각기 다른 여건에 맞게 평화통일을 위해, 그리고 차세대들의 정체성 함양 및 역사통일·인식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일본동부협의회 = '헤이트 스피치 해소' 법률안 통과에 따라 이를 사회운동으로 전개하며 한반도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
 - △ 일본중부협의회 =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해 재일동포 4·5세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로 된 남북통일 홍보물 배포, 한국방문 추진 및 통일·안보연수회 등 실시.
 - △ 일본근기협의회 = 동포사회와 청년·학생들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글짓기 대회와 통일콘서트 및 강연회 등 개최.
 - △ 일본서부협의회 = '헤이트 스피치 법'에 의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연구, 검토하고 법무국과 해당 현 및 경찰을 통한 협조 요청 지속.
 - △ 베이징협의회 = 평화통일걷기대회, 강연회를 비롯, 청소년·대학생과의 통일대화, 한국국제학교 통일백일장, 골든벨 실시.
- 9월 한중평화포럼 개최 예정.

- △ 광저우협의회 = '찾아가는 통일교실'을 통해 유치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성인 등 연령대에 맞는 통일교육 실시.
- △ 청다오협의회 = 조선족과 함께하는 통일 활동 확대, 교민 및 조선족들의 공감대 조성을 위한 통일포럼 개최 등.
- △ 상하이협의회 = 청소년통일축제를 개최해 골든벨 및 사생대회, 글짓기, 통일리본달기 등을 실시.
- △ 선양협의회 = 통일강연회와 청년통일 비전 세미나, 글짓기, 골든벨 등 추진. 8월 '동북3성 청소년 통일캠프'를 통해 역사유적지와 분단현장 방문.
- △ 토론도협의회 = 참전용사 다큐멘터리(인터뷰 및 역사자료 구축) 제작 사업 추진, 통일강연 및 북한인권법 제정 운동, 통일캠프 및 골든벨 실시.
- △ 밴쿠버협의회 = 통일로 가는 차세대 체육대회, 북한 알리기 공연 및 전시, 한국문화 알리기·역사 강연, 통일음악회, 통일글짓기 대회 등.
- △ 브라질협의회 = 현지 정계 인사 및 NGO 단체 등이 참가한 통일강연 실시, 언론기관 자료 배포를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 △ 중미카리브협의회 = 한인 후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쿠바 한인문화원'에 박물관 및 유물관, 문화관 개관, 한글교실 개설.
- △ 남미서부협의회 = 현지어로 된 북한인권 사진전 지속 개최, 통일강연회 개최 후 언론 및 인권단체와의 인터뷰 및 간담회 실시.



22일 | 대통령과의 통일대화, 통일 토크콘서트 등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식의 통일 토크콘서트 '인상적'

22일은 '한류의 역동성과 확산을 주제로 한 박길성 고려대 대학원장의 강의로 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태양의 후예'와 같은 한류 드라마가 중화권을 넘어 팔레스타인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제 10명 중 6명여량이 한국을 '분단국가'가 아닌 '문화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류는 소득 4만 달러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마지막 냉전을 풀어낼 열쇠, 통일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알아야 할 북한이야기'가 배경호 사무처장 진행으로 열렸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북한이 많게는 20만 명 규모의 인력송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기수출을 포함, 총 40~50억 달러의 외화를 통치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제재를 '고기잡는 삼각 통발'에 비유하며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화물을 검색하고 광물 수출을 막았으며 금융거래 못하게 하는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제재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 주민 90%는 장마당 활동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시장경제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길성 고려대 대학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을 인권문제로 압박해야 하며, 외부로부터 정보를 유입시키면 충분히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북한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내부 주민들이 깨어나는 것이고, 깨어있는 엘리트들은 남한 뉴스를 보고 싶어 한다며

현재 USB를 통해 북한 내 정보 확산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핵보유국으로 가는 과정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현재 북한의 무기개발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해외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대통령과의 대화

박근혜 대통령, 북핵 폐기 위한 국제사회 우호 여론 조성활동 격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2일 17기 해외지역회의 2차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통일대화'를 갖고 해외자문위원들이 북한 도발 규탄 집회와 언론 기고, 결의대회 등을 통해 안보 의지를 모아 준데 대해 격려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확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핵 포기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북한 정권이 분명하게 깨닫고,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통일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론결집과 국민통합의 선두에 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근혜 대통령

이어서 정책제언 시간에는 안창락 선양협의회장, 임정신 남미서부 자문위원, 박유식 일본동부 자문위원이 해외위원들을 대표해 정책을 제언했다. 안창락 협의회장은 동북 3성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통일활동사업을 소개하고 조선족 동포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정신 자문위원은 쿠바 한인후손문화원을 중심으로 광복절 기념행사, 한글교실 운영 등을 통해 한인 쿠바 내 한인 후손 네트워크를 다져나가고 있으며, 남미서부협의회는 경우 아르헨티나 연방국회의사당에 북한인권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유식 일본동부 자문위원은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위한 재일동포 청년 300여 명 규모의 모국 방문단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 안창락 선양협의회장



▲ 임정신 남미서부 자문위원



▲ 박유식 일본동부 자문위원



한편 이날 회의 중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를 접한 자문위원들은 긴급 간부 위원 회의를 갖고 '북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어 배정호 사무처장 주최 환송오찬에서는 협의회별 장기자랑을 통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회의 4일차인 23일에는 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아래'를 관람하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쟁기념관 등을 시찰했다. 참석위원들은 우리의 근현대사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통일외지를 새롭게 다졌고, 영화 관람을 통해 북한 체제의 허상과 모순을 생생하게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기자희 / 사진.김규성>

참가소감

통일과 한인의 우수성을 세계 각지에 알리겠습니다!

구광모 부회장(남미서부협의회) :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해외동포들이 여기 와서 아름다운 통일을 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니, 현 남북 대치 상황을 실감하게 돼 찜찜한 심정입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학교를 오래 운영하면서 후세들에게 한글과 우리 문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통일이 되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갈 길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합니다.



구광모



이정은

이정은 부회장(밴쿠버협의회, 작곡가) : 이번 해외지역회의를 통해 통일에 관한 특강을 들으면서 현 남북관계 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시아계 여성 최초의 캐나다인 작곡가로, 동-서양 악기들이 함께 융화하는 곡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 외에도 차세대들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창표



김희영

홍창표 청년위원(브라질, 변호사) : 해외지역회의에 처음 참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15년 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한인 동포들과 지역 커뮤니티에 소속돼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번에 상파울로 시의원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경계에 진출해서 한인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통일문제를 주류사회에 알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김희영 통일MC : 자문위원들께서 30시간 이상씩 비행해 오시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기뻐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것 같아요. 작은 마음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진정성, 조국에 대한 사랑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통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기 재능을 십시일반 보태는 것이 통일 준비가 아닐까 생각해요. 방송인으로서, 진행자로서 함께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념통천으로 평화통일 이룬다! 제17기 국내지역회의 성료 평화통일 위한 국론결집 및 국민통합 통일정책 건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로 북한의 도발을 철저히 억제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전국에 걸쳐 북핵 규탄 1인 릴레이시위를 전개했던 열정으로 앞으로도 국민여론 결집에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국내지역회의가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민들의 통일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의장 영상메시지 中)”

민주평통은 6월 14일(화)부터 7월 7일(목)까지 17개 시·도 및 이북5도지역회의, 국내 자문위원 1만6,582명을 대상으로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를 개최했다. 국내지역회의는 의장인 박근혜대통령이 소집하고 지역별 부의장의 주재하는 법정회의이며, '평화통일은 국론결집과 국민통합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지역회의에서는 북한도발, 대북제재 등 변화하는 통일환경 속에서 국론을 한데 모으고 지속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기 위한 정책건의안을 마련, 심의 의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29일 서울지역회의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는 지난 6월 29일(수)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제17기 서울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평통 유호열 수석부위원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손경식 서울부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25개 협의회장, 자문위원들이 참여해 국론결집과 국민단합으로 통일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박근혜대통령, '국민 통일여론 결집 위한 계기 되길'

서울지역회의는 김혜정 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일권 청년위원장, 한태숙 여성위원장의 자문위원 실천강령 낭독, 손경식 서울부위원장 개회사, 유호열 수석부위원장 격려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의장 메시지가 상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이번 국내지역회의가 안보의식 고취, 국민 통일여론 결집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 유호열 수석부위원장



▲ 손경식 서울부위원장

유호열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1월 북핵 실험 이후 자문위원 1인 릴레이시위가 펼쳐졌을 때 서울지역 자문위원들이 가장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장인 대통령께서 해외자문위원들과 가진 대화에서 이러한 자문위원들의 열정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북핵문제를 해결해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의 적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무관심, 무기력”이라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일관되게 뜻을 펼치면 하늘도 감동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마음으로 제17기 자문위원들이 그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경식 서울부위원장 개회사에서 “오늘 서울지역회의가 평화통일을 위한 국론결집과 국민통합의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의 새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 태도 변화에 따른 안보문제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북한도발이나 테러에 대해 서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분단 상황 관리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인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정책 추진방향’ 보고를 맡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선은 비핵화를 위한 압박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염증을 먼저 가라앉힌 뒤 그 위에 연고를 발라 치료하듯’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은 북한은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기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결집해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은숙 위원활동지원국장이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등을 소개했으며, ‘내가 꿈꾸는 통일’ 영상 시청을 통해 서울지역 자문위원들의 통일원원과 활동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등 정책건의



본 회의에서는 손경식 서울부위원장이 성원보고를 마치고 의안을 상정했으며, 변진홍 서울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이 ‘정책건의 TF운영경

과'를 보고했다. 서울지역회의는 4월 29일 TF팀을 구성, 정책건의안을 작성했으며, 5월 16일부터 20여 일 간 지역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건의안을 상정했다. 정책 제안의 시간, 오경섭 상임위원(은평구)은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을 주제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범사회적 소통네트워크 구성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운동 확산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주평통의 실천적 역할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세원 상임위원(중구)은 '건전한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전개방안'으로 ▲대상별·채감형 통일공감교육 필요 ▲청소년 통일교육 내실화 ▲지역사회 통일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 변진홍 서울 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



▲ 오경섭 상임위원



▲ 김세원 상임위원



▼ 서경희 소프라노(서초구 자문위원)

정책건의 후, 송동호 간사(중로구)가 대표로 '자문위원 스스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평화통일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며 통일역량 결집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국론결집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손경식 서울부의장이 자문위원들의 전원 동의 아래 정책건의안 결의문을 심의, 의결했다.

마지막 순서로 준비된 축하공연과 통일대합창의 시간에는 유럽무대에 다양한 오페라곡을 선보여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서경희 소프라노(서초구 자문위원)가 '입맞춤(이탈리아곡)', '오 통일이여' 등의 노래를 선보였으며, 공연 후에는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염원과 희망을 담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했다.



●●●●● 각 시·도별 17기 국내지역회의 개최 개요 ●●●●●

부산지역회의(6월 14일 /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이영숙 부산부의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각 구협의회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600여 명의 부산지역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홍순환 부산지역회의 간사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 참여형 통일준비 방안' 제안 - 조경근 상임위원(경성대 교수) ▲'건전한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전개 방안' 제안 - 강동완 상임위원(동아대 교수)



인천지역회의(6월 17일 / 인천광역시청 대강당)

허회숙 인천부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 지역협의회장, 자문위원 등이 4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이준한 포럼위원장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국론결집 방안' 제안 - 송광석 자문위원(계양구)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제안 - 임형신 자문위원(남동구)

세종지역회의(6월 20일 / 세종시청 세종실)



오영철 세종부의장, 이춘희 세종시장,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 길병욱 포럼연구위원장 등 8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길병욱 포럼연구위원장 ▲'대북제재 국면에서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제안 - 김성현 자문위원 ▲'지역 시민단체와의 통일준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안' 제안 - 임현아 자문위원



충북지역회의(6월 24일 / 충북농업기술센터 청심관)

한상길 충북부의장, 이시중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각 지역협의회장, 자문위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이재록 포럼위원장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 참여형 통일준비 방안' 제안 - 이재록 위원장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제안 - 신길수 자문위원



울산지역회의(6월 24일 / 울산광역시청 대강당)

이진용 울산부의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 지역협의회장, 자문위원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이창형 포럼위원장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참여형 통일준비 방안' 제안 - 배병인 청년위원장 ▲'지역시민단체와 통일준비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 협력방안' 제안 - 이장숙 여성위원장



경북지역회의(6월 27일 / 경북도청 대공연장)

한삼화 경북부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권영세 안동시장, 김영석 영천시장, 최수일 울릉군수, 백선기 칠곡군수 등의 단체장과 지역협의회장, 자문위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최철영 포럼연구위원장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국론결집방안' 제안 - 정병태 자문위원(경주시)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통일 공감대 확산방안' 제안 - 이인숙 자문위원(예천군)



전남지역회의(6월 27일 / 전남도청 김대중강당)

장영인 전남부의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 지역협의회장 등 자문위원 712명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남형근 포럼위원장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참여형 통일준비 방안' 제안 - 김유숙 조선대 교수 ▲'건전한 통일외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전개 방안' 제안 - 전광섭 호남대 교수



광주지역회의(6월 28일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배정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상준 광주부의장, 문인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각 지역협의회장, 자문위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강성률 포럼위원장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제안 - 선봉규 전남대 교수 ▲'건전한 통일외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전개 방안' 제안 - 강성률 포럼위원장



경기지역회의(6월 28일 / 경기도 문화의전당)

유호열 수석부의장, 박해진 경기부의장, 남경필 도지사, 윤화섭 경기도 의회의장, 김형석 통일부차관을 비롯 2천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유영욱 포럼위원장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국론결집 방안' - 유승익 평택시협의회장 ▲'건전한 통일외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전개방안' - 김윤태 자문위원





강원지역회의(6월 30일 / 춘천 한림대학교)

박용성 강원부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동용 춘천시장을 비롯해 50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오경식 포럼위원장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참여형 통일준비 방안' 제안 - 전제원 청년위원장 ▲'지역문화 자산을 활용한 통일공감대 확산방안' 제안 - 김숙영 여성위원장

충남지역회의(7월 1일 / 충남도청 문예회관)

김병욱 충남부지사, 허승욱 충남정무부지사를 비롯해 5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하재수 포럼위원장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참여형 통일준비 방안' 제안 - 여운영 자문위원(아산시) ▲'건전한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전개 방안' 제안 - 맹의석 자문위원(천안시)



전북지역회의(7월 5일 / 전북도청 대강당)

송현만 전북부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자문위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신기현 포럼위원장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참여형 통일준비 방안' 제안 - 이성용 청년위원장(순창군) ▲'지역 시민단체와 통일준비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 협력방안' 제안 - 나준균 협의회장(전주시)



대전지역회의(7월 5일 / 대전시청 대강당)

배경호 사무처장, 강영자 대전부지사,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29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유병선 상임위원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참여형 통일준비 방안' 제안 - 유병선 상임위원 ▲'건전한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전개 방안' 제안 - 홍순만 자문위원(유성구)



이북5도지역회의(7월 6일 / 서울사이버대학교)

유호열 수석부시장과 이세웅 이북5도 부시장, 백구섭 이북5도 위원장을 비롯해 대표운영위원 및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을 주제로 '북한인권 및 인도적 문제'에 대한 국내외 여론 형성 활동 지속 등을 제안 - 윤일영 미수북 경기도 대표운영위원



대구지역회의(7월 7일 / 대구시청 대회의실)

유호열 수석부시장, 박규하 대구부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김동균 포럼 상임고문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참여형 통일준비 방안' 제안 - 박철 자문위원 ▲'건전한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전개 방안' 제안 - 조병철 자문위원



제주지역회의(7월 6일 / 제주도청 대강당)

김순택 제주부시장, 원희룡 도지사, 임강자 제주시협의회장, 고성준 상임위원을 비롯해 자문위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국론결집 방안' 제안 - 강근형 자문위원 ▲'지역 시민단체와 통일준비 네트워크 구축 및 구체적 협력방안' 제안 - 김병성 자문위원



경남지역회의(7월 7일 /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

최충경 경남부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자문위원 7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건의 TF운영경과' 보고 - 하상식 포럼위원장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참여형 통일준비 방안' 제안 - 진희관 상임위원 ▲'건전한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전개 방안' 제안 - 박종철 상임위원



●●●●●●●●●● 국내지역회의 이모 저모 ●●●●●●●●●●

통일활동 응원하는 대행기관장들의 축사



▲ 유정복 인천시장



▲ 이시종 충북도지사



▲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통일에는 공짜가 없다"며 "통일을 위해 내가 가진 재산과 땀과 눈물을 바치려는 각오가 됐을 때 통일이 이뤄진다는 신념으로, 자문위원 모두가 스스로 '통일 도지사', '통일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활동해 달라"고 말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시종점, 환태평양의 중심 항만 등 어느 곳보다 통일의 열망이 강한 도시"라며 부산이 다가올 통일 시대에 미리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대북공조체제를 확산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던 아프리카 우간다 등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우방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내년에 서울지역회의의 사업비를 확실히 인상하겠다"고 약속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지난 35년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통일에 대한 국론분열이 과거에 비해 점점 수습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격려했다.

'통일노래 개사 대회' 개최... 시민축제로 치러진 인천지역회의



인천지역회의는 2부 행사로 '2012 통일LIVE(통일노래 개사 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에는 남동구 '1:6멘토링팀'과 웅진군 '아름다운 봉사회 CEO'팀, 서구 '경인교대부설 초등학교 칸타빌레 합창단' 등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총 10팀의 대회 참가자들과 응원단이 장내를 가득 메웠다. 참가자만 무려 220여 명이 넘는 대회에서는 '통일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통일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사랑이야~', '평화통일 마법가루 반짝반짝, 아름답고 행복한 평화의 세상, 통일된 세상~'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반영한 통일 가사들이 쏟아졌으며, 통일 치어리더 응원 등 다양한 안무까지 준비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국내지역회의 자문위원 참여 소감

양우진 협의회장(중구) :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회의였어요. 우리 자문위원들은 풀뿌리 통일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국론결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미애 부회장(경북 구미시) : 23개 시군 자문위원들이 모두 '평화통일은 꼭 온다'는 마음을 안고 모였습니다. 머지않아 통일이 오리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서 어느 해보다도 활기가 넘쳤어요. 북핵문제 등으로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평화통일을 확신하고 다짐했던 자리였어요.

강광민 간사(광주 광산구) : 오늘 회의가 평화통일을 위한 국론결집과 국민통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미래 우리의 후손들에게 핵무기와 전쟁에 대한 공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통일입니다.



▲ 양우진 협의회장



▼ 유미애 부회장



▲ 강광민 간사



▼ 서창환 청년위원장



▲ 임원자 청년위원



▼ 고광태-정인갑 자문위원

서창환 청년위원장(금정구) : 부산이 평화통일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물류와 항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 8월에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문화통일콘서트를 개최해서 통일공감대를 넓히고 문화로 소통하겠습니다.

임원자 청년위원(곡성군) : 16기부터 활동하면서 올바른 청소년 통일교육이 필요하단 걸 느꼈어요. 이에 각 지역협의회에서 청년위원들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통일은 남북한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하는 '행진'입니다.

고광태·정인갑 청년자문위원(서구) : 남북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분열이 심각한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해요. 앞으로 2030세대를 대표하여 청년들의 결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기자희 / 사진.신영민>

NUAC NEW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취임식 개최



권태오 신임 사무처장 취임식이 7월 8일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개최됐다. 신임 권태오 사무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 세대와 지역,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통합의 표본인 민주평통이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을 단합시켜 나가는데 바로 지금 앞장 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2만 자문위원들이 통일 의지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 속에서 효과적인 통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설35주년 기념식 열어



민주평통은 지난 6월 3일(금) 사무처에서 '민주평통 창설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과 배정호 사무처장, 운영위원과 상임위원 및 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민주평통의 창설 취지를 되새기고 통일준비를 위한 역할과 사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민주평통의 오늘이 있기까지 공헌한 역대 선배님들과 자문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통일 의지와 지혜를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17기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 날 기념식에서는 장기 재직 공무원과 정년 퇴직을 앞둔 지역협의회 행정실장들에 대한 재직공로패 등의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민주평통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통일 합동 기원제’ 열어

▼ 김덕수 사물놀이패



▲ 성악 앙상블 벨트라움



민주평통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는 지난 6월 10일(금)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통일 합동 기원제'를 열었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12개 시·도 부의장과 김태현 여성부의장, 배정호 사무처장을 비롯,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합동 기원제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을 하나 된 통일의지로 극복해내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지난 5월 22일 '제주 한라산 기원제'에서부터 시작됐다. 통일 전문 MC 김희영 전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물과 18개 시·도 부의장들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채수한 물을 합수한 뒤 남북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합수식 및 평화통일 기원제'로 막을 열었으며, 서예작가 장상두 교수가 이 합수된 물로 평화통일 기원 붓글씨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바리톤 박정민, 성악앙상블 벨트라움, 탈북가수 김정원 씨 등이 축하 공연을 펼쳐 평화통일염원과 하나 된 통일의지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용탁 제주시 자문위원 (JIBS SBS 보도위원) = '평화의 섬' 제주에서 통일의 물결을 북상시켜보자는 의미로 출발, 백두산을 바라볼 수 있는 임진각까지 기를 모아 기원제를 열었습니다. 제주에선 1,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청소년 및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미래의 주인공인 이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되새겨 보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북한 인권 활동방향 모색



민주평통 인권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제성호)는 6월 24일 국회도서관 지하1층 강당에서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사무소 개소 1주년을 계기로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북한인권 관련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인권법제분과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서울국제법연구원, 한국유엔체제학회 등이 공동주최했으며, 유호열 수석부의장과 나경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타렉 셰니티 유엔북한인권사무소 부소장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대학생, 일반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세미나 1세션에서는 '유엔과 북한인권'을, 2세션은 '북한인권 핵심가해자의 책임 규명'을 주제로 정하고 주제발표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통일골든벨 본선대회 모두 마쳐... 국내외 학생 100명 결선 진출



'2016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결선대회에 참가할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가려졌다. 민주평통은 5월 17일 대전지역회의 대회를 시작으로 6월 15일 제주지역회의 대회까지 총 16개 권역의 시·도별 본선대회를 모두 마쳤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관을 함양해 미래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통일리더 육성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실시하는 통일골든벨은, 올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역사·통일문제(기본학습교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장 추천방식을 배제했으며, 대회도 12개 권역에서 16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예능상을 신설, 수상자에게 전국 결선대회 출전자격을 부여해 흥미를 더했고, 해외동포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도 넓혔다.

서울 은평구협의회 '통일기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 성료



▲ 통일비빔밥만들기 퍼포먼스

▶ 통일성화로 봉산 봉수대에서 봉화



서울 은평구협의회(회장 전우대)는 6월 11일(토) 봉산 봉수대와 은평 평화공원 일대에서 '2016 통일기원 어울림 한마당축제'를 열었다. 배경호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국회의원, 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관내 구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통일기원제'와 '어울림 한마당'이 각각 펼쳐졌다. 먼저 1부 '통일기원제'에서는 구민들이 평화공원에서 성화를 채화한 뒤 '통일 성화'를 들고 달려 봉산 봉수대에서 봉화를 올림으로써 평화통일을 향한 통일 염원과 의지를 알렸다. 은평 평화공원에서 펼쳐진 2부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는 주요 인사들이 참가해 '통일비빔밥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아이돌그룹 BIG와 승실중학교 관현악단, 탤런트 김경애(자문위원) 씨 등이 '통일음악콘서트'에 출연해 공연을 펼쳤다. 전우대 은평구협의회장은 "통일기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3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8천만의 통일 의지가 하나로 모아질 때까지 남북한이 어울려 한마당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시대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등



▼ 경기 포천시협의회



▲ 경기 동두천시협의회



경기 동두천시협의회(회장 안민규)는 5월 24일 동두천 자원봉사센터에서 '2016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고, 경기 포천시협의회(회장 오병익)는 27일 북부 10개 협의회를 대상으로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했다.



▲ 강원 동해시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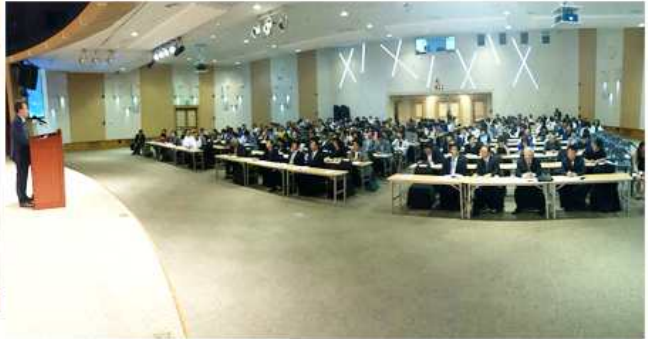
▲ 강원 횡성군협의회

▲ 제주지역회의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 여성위원회(위원장 남상옥)는 6월 7일 제주지역 여성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제3기 '2016 제주여성 통일 리더십 과정'을 마쳤다. 강원 동해시협의회(회장 김홍수)는 8일 농협주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강연회를 열었으며, 같은 날 강원 횡성군협의회(회장 조원용)는 관내 노인대학 어르신, 지역민들과 함께 통일 및 안보 교육을 실시했다.



▲ 강원지역회의



▼ 경기지역회의

강원지역회의(부의장 박용성)는 13~14일 강릉시 한국여성수련원에서 '2016 강원지역 간부위원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경기지역회의(부의장 박해진)는 15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 31개 시·군 협의회장 및 제17기 포럼회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경기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 경북 울릉군협의회

▼ 대전 대덕구협의회&대전 동구협의회

▲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경북 울릉군협의회(회장 김유길)는 5월 19일 관내 중학생들과 함께 독도에서 '청소년 독도 문화탐방' 및 중학생 통일골든벨을 실시했으며, 대전 대덕구협의회(회장 강덕구)와 대전 동구협의회(회장 남진근)는 5월 20~21일 '행복한 통일캠프'를 열었다.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점순)는 22일 임진각 DMZ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전방견학 및 DMZ자전거투어 통일 홍보 캠페인'을 펼쳤고,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는 23일 삼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과 함께 탈북인사 초청 '청소년 통일교실'을 개최했다.



▲ 충남 예산군협의회

▼ 경북 예천군협의회



▲ 경기 가평군협의회 경기 여주시협의회



경북 예천군협의회(회장 강무한)는 25일 대창고등학교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행사를 진행했으며,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26일 청평초등학교에서 '2016 찾아가는 통일교실'을 열었다. 같은 날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임영현)는 경기관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청소년 안보견학을 실시했다.



▲ 경기 광명시협의회



▼ 충남 청양군협의회



▼ 전남 장성군협의회

경기 광명시협의회(회장 윤순갑)는 6월 1일 광명고등학교에서 '2016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대화' 행사를 실시했고, 충남 청양군협의회(회장 강석중)는 2일 2016년 2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통일의견을 수렴한 뒤 청소년평화통일 포스터 공모전 당선작들을 전시했으며, 전남 장성군협의회(회장 안숙자)는 3일 장성고등학교에서 탈북강사 초청 청소년 통일교실을 열었다.



▲ 서울 중구협의회



▼ 인천 서구협의회

서울 중구협의회(회장 양우진)는 1~3일 싱가포르에서 '통일 리더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싱가포르 지회(지회장 곽명재)와의 통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청소년 통일공감 통일골든벨, 지성호 청년분과위원장 (북한청년인권단체 나우 대표)의 북한인권 이야기 등이 진행돼 해외지역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통일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영학)는 9일 '청소년 나만의 통일 화랑 사진전시회'를 열었고, 전남 순천시협의회(회장 류계숙)는 10일 순천향림중학교에서 '2016 청소년과 함께 하는 통일이야기'를 진행했다.



▲ 전남 순천시협의회



▲ 강원 철원군협의회

인천 남구협의회 ▶



▲ 경기 시흥시협의회



▲ 인천 계양구협의회

강원 철원군협의회(회장 현태섭)는 10일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노동당사에서 '제 19회 평화통일기원 DMZ 걷기대회'를 개최했고, 인천 남구협의회(회장 신병희)는 11일 인천남중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강원도 양구로 청소년 통일기행을 다녀왔다. 같은 날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현)는 임진각 및 파주DMZ에서 송문중학교 통일리더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통일현장 견학 및 역사기행을 실시했고, 인천 계양구협의회(회장 최재현)도 호국안보의 달을 맞아 서울 국립현충원과, 용산 전쟁기념관 등으로 '청소년 통일·역사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 경북 성주군협의회



▼ 충남 당진시협의회

경북 성주군협의회(회장 김영조)는 6월 11일 지역 청소년 통일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성주여고 반크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충혼탑 및 문화유적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고, 충남 당진시협의회(회장 유수일)는 관내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평화통일 청소년 시낭송대회'를 열었다.

▼ 제주 제주시협의회



▲ 경기 김포시협의회



▲ 경남 남해군협의회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임강자)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고남영)는 10~12일 초등학교 및 중학생들과 함께 도라산과 전쟁기념관 등으로 '국가안보는 가족사랑' 청소년 안보답사를 다녀왔으며 임진각에서 열린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통일 기원제'에 참석했다.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최선희)는 13일 통진고등학교에서 '고교생 1일 통일교실'을 열었으며, 경남 남해군협의회(회장 최홍백)는 이동중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창녕박전전쟁기념관, 진해해군기지사령부 등에서 '청소년 안보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 경북 영덕군협의회



▼ 충남 서산시협의회

경북 영덕군협의회(회장 최길동)는 이날 강구정보고등학교에서 지역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 및 북한 문화 이해하기 특별참여교육을 실시했으며, 충남 서산시협의회(회장 송낙인)는 서령중학교에서 '중학생 통일골든벨대회'를 개최했다.



◀ 전북 군산시협의회

▼ 강원 홍천군협의회



전북 군산시협의회(회장 황진)는 6월 15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전주교육대 군산부설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통일공감 체험학습' 행사를 진행했으며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6월 17일 홍천초등학교에서 '통일!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부산 사하구협의회



▲ 서울 노원구협의회



▼ 경기 안산시협의회

부산 사하구협의회(회장 배백식)는 5월 24일 대행기관장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경찰서관계자 등과 함께 관내 자전거회사가 기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돕기 2차분 자전거 전달식을 개최했으며,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신혜두)는 6월 9일 노원구청에서 관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실시했다. 같은 날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안산초치고등학교에서 안산·부천·광명·군포 지역 북한이탈주민 및 관내 단체들과 함께 '안산 하나 통일골든벨' 대회를 열었다.

▼ 서울 광진구협의회

대구 달서구협의회 ▶



▲ 충남 보령시협의회

서울 광진구협의회(회장 최복수)는 9~11일 북한이탈주민, 경찰서 관계자들과 함께 '평화통일 염원! 우리국토 사랑! 울릉도 독도 탐방!' 행사를 진행했으며,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는 12일 월배초등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남북화합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오치인)는 11~12일 북한이탈주민, 지역주민들과 함께 거제도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및 통일 충렬사, 삼도수군통제영 일대를 견학했다.



▲ 경기 수원시협의회



▼ 경남 고성군협의회



▼ 부산지역회의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손재필) 15일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삼성전자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관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장을 보는 시장투어를 진행했다. 경남 고성군협의회(회장 김성진)는 14~15일 대마도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 견학'을 실시했으며,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 여성위원회(위원장 신경주)는 18일 119 안전체험관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 '2016 탈북가정 통일리더십 체험' 2차 활동을 실시했다.

통일문화 확산



▼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 경기 과천시협의회



▲ 전북 전주시협의회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5월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기철 미주부위원장, 국회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해외지역회의 기간 중 방한한 위싱턴협의회(회장 황원균)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진행했다.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는 21일 과천~파주임진각(약98km)까지 과천시민, 자전거 동호인들과 함께 '평화통일염원 과천 자전거대전'을 개최했으며,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는 22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제3회 통일대한민국 전국 청소년 댄스퍼포먼스 대회'를 열었다.



▲ 대구 달성군협의회

▼ 서울 금천구협의회



▲ 전북 김제시협의회

대구 달성군협의회(회장 김상문)는 23~24일 탈북민과 함께 백령도에서 안보연수를 실시했으며,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박준식)는 24일 강원도 양구 제4땅굴, 울지전망대 및 두타연 등으로 '2016년 통일시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보견학'을 다녀왔다. 전북 김제시협의회(회장 도인기)는 27일 인근 부대와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기관단체장들과 시민, 덕암고등학교 학생, 부대 장병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7회 통일한마당 국민한마음잇기' 행사를 개최했으며, 충남 아산시협의회(회장 김세영)는 27~31일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유허지를 찾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민족의 당면 과제인 통일염원을 되새겼다.



▲ 충남 아산시협의회



▲ 대전 서구협의회



▲ 경북 의성군협의회



▼ 대구 동구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는 27~28일 '국토사랑 백령도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고 경북 의성군협의회(회장 오걸수)는 28~30일 울릉도, 독도로 '2016년 자문위원 안보현장견학 및 연수'를 다녀왔으며, 대구 동구협의회(회장 송진오)는 6월 3일 대행기관장, 구의회 의장,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2016 민주평통 대구동구협의회 춤마렐라 통일 퀴즈대회'를 열었다.

▼ 충남 홍성군협의회



▼ 부산 서구협의회





▲ 강원 고성군협의회

충남 홍성군협의회(회장 이무형)도 3일 주부를 대상으로 역사·통일 골든벨을 개최했으며,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류재형)는 3~4일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피란수도 부산 야행' 행사에 참가해 피란시절 음식 체험 행사 부스를 운영했다. 강원 고성군협의회(회장 황병구)는 10일 고성군 문화의 집에서 대항기관장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양예술단 초청공연을 열었다.



▲ 경북 고령군협의회

◀ 서울 관악구협의회 ▶ 충북 청주시협의회

경북 고령군협의회(회장 이상용)는 10일 관내 여성단체회원들과 함께 해군제2함대 사령부에 전시된 천안함과 참수리호를 견학했으며, 서울 관악구협의회(회장 이정범)는 이날 강원도 철원군에서 열린 '평화통일염원 걷기대회'에 참여했다. 충북 청주시협의회(회장 안덕호)는 15일 청주국민체육관에서 일반시민, 다문화,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2016 청주시민 통일공감한마당'을 개최했다.

지역 봉사활동



▼ 서울 중랑구협의회

부산 동구협의회 ▶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김상희)는 5월 20일 '2016 서울장미축제' 기간 중 통일부스를 운영, 북한사진 전시회를 열고 어르신 1천여 명에게 자장면 등 음식을 나눠드렸으며, 부산 동구협의회(회장 강명자)는 25일 동구청에서 주최하는 '제3회 구민합동 전통혼례식'에 참석했다.



▲ 서울 동작구협의회

▲ 강원 화천군협의회



▼ 충북 옥천군협의회

서울 동작구협의회(회장 최성배)는 25일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사람 한송이 헌화 운동'을 실시했으며, 강원 화천군협의회(회장 이태호)는 27일 화천읍 충렬탑공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곽균상)는 30일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 전남 곡성군협의회



▼ 대전 유성구협의회

전남 곡성군협의회(회장 김판준)는 6월 7일 곡성교육청에서 다문화 및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수영용품을 전달했고, 대전 유성구협의회(회장 김승수)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임송은)는 대전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유공자 어른신들을 대상으로 사진촬영, 이미지용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 대구 남구협의회



▲ 전남 구례군협의회

▼ 경남 진주시협의회



대구 남구협의회(회장 노판석)는 8일 대행기관장 및 보건소 담당자, 간호사들과 함께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한 뒤 후원 물품과 격려금을 전달했고, 전남 구례군협의회(회장 이종석)는 11일 여순사건 및 6·25전쟁 유적지인 지리산충혼탑에서 호국영령들을 추모한 뒤, 자연정화활동을 펼쳤다.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13~16일 진주시 갑현면 다문화가정에서 '다문화가정 대상 사랑의보금자리 6호점' 오픈 행사를 열었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중국 선양협의회(회장 안청락)는 5월 21일 선양시 인터스쿨 체육관에서 '2016년 제3회 나라사랑 역사·통일 골든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각 지역별, 학교별 예선대회 통과자 152명이 참여했으며, 약 500여 명의 학생, 학부모와 교사들이 열띤 경연을 응원했다. 또한 7개 팀이 장기자랑 무대를 준비해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현직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다렌지회 강혜수 자문위원이 골든벨 대회 사회를 맡아 매끄러운 진행을 이끌었다. 이날 최후의 승자는 지난해 우승자였던 다렌 한국국제학교 11학년 전창렬 학생으로, 한국 결선대회 출전권을 얻게 됐다.



미국 시카고지역협의회(회장 이문규)는 5월 20~23일 평화통일 염원을 마음에 품은 채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등반했다. 5월 중순 서울에서 진행됐던 미주 해외지역회의의 일정을 마친 시카고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은 연변지역을 방문해 백두산을 등반한 후 운동주 시인 생가와 연변 조선족 자치구 등을 방문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6월 18일 (사)우리민족교류협회, 코리아나 플라자와 함께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6.25 참전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 공식인정 메달'을 전달했다.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을 녹여 만든 이 메달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서 마련됐으며, 전달식 후에는 함께 모여 전쟁터에서 겪은 경험담 등을 나눴다.

미국 LA협의회(회장 임태량)는 6월 14일 가든스윗호텔에서 자문위원 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사업을 보고하는 한편 향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통일은 대박이며, 축복'이라는 주제로 통일강연을 실시했다.



미국 오렌지샌디에고 협의회(회장 권석대)는 5월 11일 LA 한국문화원에서 국방부 주관 '2016 세계 장병·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 미주 지역예선을 LA총영사관과 함께 실시했다. 해외 지역 차세대 자녀들의 통일외식 함양과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사전 접수를 마친 7개 팀이 참가해 통일을 주제로 참신하고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길라잡이팀'(황희영·양현지·김혜민)은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반도 상황을 콩트 형식으로 표현해 주목을 받았다. 출전 팀들은 청소년이 통일에



에 출전할 예정이다.

대해 가져야 할 자세를 뉴스 형식으로 소개하기도 했고, 미국 대학에서 남북 유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을 나누는 단편영화도 선보였다. 길라잡이 팀은 오는 7월 18~22일 한국에서 열리는 본선대회



중국 칭다오협의회(회장 이영남)는 6월 4일 중국연대지역에서 2016 통일·역사 골든벨 행사를 치렀다. 칭다오를 비롯해 연대, 위해 지역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통일골든벨문제에 시사문제를 접목하는 한편,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통일관련 상식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문제를 출제했다. 이날 위해중세한국국제학교 지회원 학생은 단 한 번의 탈락도 없이 최후의 1인으로 남아 결선대회 진출권을 얻었다.



중국 베이징협의회(회장 경재화)는 5월 28일 북경한국국제학교(학교장 조선진)에서 '2016 청소년 통일골든벨' 행사를 실시했다. 민족 정체성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북경과 천진지역 예선 통과자 각각 50명 씩, 총 100명이 경합한 가운데 북경한국국제학교 11학년 김주현 학생이 최후의 1인으로 남아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또한 중간에 독도 관련 이벤트를 실시, 독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천진한국국제학교 오케스트라, 북경한국국제학교 태권도 시범, 댄스 및 힙합팀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마련됐다.



하릴없이 발걸음을 옮기다 올려 본 하늘이 온통 푸릇하다. 도무지 언제부터 제 자리를 지켰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단단한 나뭇가지 사이로 말간 여름 하늘이 흘러간다. 분명 익숙하거나 혹은 친숙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깔깔거리며 웃기만 해도 하루해가 훌쩍 저물 던 철부지 시절, 설렘 가득히 떠났었던 여행지는 옛 추억과는 조금 다른 얼굴로 여행자를 맞이한다. 다행이라면 그 시절 찬란했던 기억만큼 도심은 여전히 푸르렀으며, 조곤조곤 불어오는 바람은 상냥했다. 그래서일까. 경주의 긴 낮과 짧은 밤을 떠돌며 아득히 먼 과거로부터 시작된 옛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문득 지금 더 행복해지리라 다짐하게 된다.

🌿 능이라 이름 붙여진 송림, 대릉원

하루 종일 긴 목을 가누지 못해 삐거덕거리는 선풍기 앞을 서성이다 게으른 엉덩이를 털어내고 출발했던 여행. 딱히 큰 기대를 갖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너무 무덤거나 소란하지만 알았으면 싶었다. 이 계절에 지쳤고, 바쁜 일상과 사람에 지쳤으며, 삶이 조금 무료해졌던 날 차창 밖으로 싱그러wie 펼쳐지는 신록을 따라 처음 발길이 멈춘 곳은 경주의 대릉원이었다.

역사상 가장 긴 왕조를 유지하며 이 땅을 지배했던 황금의 왕국은 화려했던 역사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를 품고 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수도였던 경주에서는 어렵지 않게 그 시대의 발자취와 마주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대릉원은 무려 23기의 아담한 무덤이 붕긋붕긋 자리한 그 자체로 역사의 현장이다. 또한 두 겹의 능선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황남대총과 미추왕릉, 천마도가 출토돼 이름 붙여진 천마총 등이 모여 있는 경주 고분군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분명 능이라면 오래전 죽은 이들의 넋이 남아 있는 곳일 터. 하지만 백골이 진토가 되고, 생전의 간절한 염원조차 희미해진 능은 무덤이라기 보다 울창한 송림을 연상케 한다. 보드라운 잔디에 뒤덮인 봉분이 시선을 두는 곳곳 불쑥불쑥 등장하지만, 그 모습마저 자연스러워 종래엔 친근하게 느껴질 정도다. 무엇보다 그리 크지 않은 새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만큼 한적해, 쉬고 싶은 날 머무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 옛 왕국의 별 흐르던 밤, 침성대

길시간은 그 먼 과거나 오늘이나 공평하게 흘러간다. 대릉원 너머 낮은 돌담을 사이에 두고 이어진 단정한 남청빛 기와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쯤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또 다른 역사의 흔적과 마주한다. 별을 관찰해 왕국의 길흉과 농사절기 등을 점치기 위해 쌓아 올린 단은 아담하고 고고한 자태를 자랑한다.

얼핏 지나친다면 이게 그 유명한 신라의 '침성대'임을 놓치기 쉬운 모습. 하지만 너른 들판 위 반듯이 하늘을 머리에 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자연스레 그 시대에도 반짝였을 별무리를 상상하게 된다. 그렇게 또 한 번, 성큼 시간을 거슬러 오른다.



🌿 우아한 밤의 정취, 동궁과 월지

사실 경주는 생생한 낮의 풍경만큼이나 밤의 정취가 우아한 여행지다. 밤의 장막이 드리워진 도심 곳곳, 숨겨진 천 년의 보물들이 조명 아래 반짝일 때면 옛 왕국을 거니는 듯 착각마저 들기 때문이다. 여름날 태어난 바람에는 날 풀의 내음이 가득 묻어난다. 귀한 손님을 맞을 때면 연회를 베풀었다는 별궁의 옛 성터와 그 성터를 둘러싼 바다와 닮은 연못 위로도 여름의 바람이 스치운다.

월성의 북동쪽, 인공정원의 호수인 월지는 그 낭만적인 명칭처럼 달빛 아래 더 고운 자태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신라의 인공호수다. 흔히 조선시대에 붙여진 안압지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연못 위로 달이 차오른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 오늘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 불국사

누구나 하나쯤 가슴에 믿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것은 특정한 명칭의 종교일 때도 있으며, 스스로를 믿는 강한 신념이나 혹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향한 신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형태가 다를 뿐 그 믿음들이 오늘의 삶에 순응하고 내일을 희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은 같을 것이다. 옛 경주를 터전 삼아 살았던 사라진 왕국의 사람들이 품었던 믿음은 무엇일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귀한 보물, 불국사는 경주를 찾는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걸음 했음직한 유명한 관광지다. 그리고 옛사람들의 믿음이 오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경주를 여행하다 보면 으레 그렇듯 불국사와 마주한 순간 학창시절 달달 외워 두었던 온갖 역사상식이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두서없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기록한다 해도 글은 글일 뿐. 범영루 처마 밑으로 쏟아지는 햇살조차 귀하고 곱게 보이는 불국사의 매력은 당연하게도 실제 눈으로 마주했을 때 가장 선명하게 와 닿는다. 가장 이상적이며 세련된 조형미를 자랑한다는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때 창건되었으며, 60여 동의 크고 작은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임진왜란 등의 전쟁으로 인해 부서지고 불태워져 본래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지만, 대웅전 앞의 석가탑과 다보탑, 빛바랜 수학여행 사진에 곤잘 등장하던 청운교와 백운교란 이름의 돌계단 등 불국사의 보물들은 여전히 고아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담장 위 돌맹이 하나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도심. 그럼에도 경주는 신기할 만큼 선명한 생명력이 펴떡인다. 어제의 화려했던 영광 위로 오늘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제는 회미해진 과거의 흔적들. 하지만, 더없이 찬란했기에 미련 없이 등을 보일 수 있는 옛 터전 위로 유독 오래 바람이 머문다. 그러니 이 바람이 다 지나기 전 어제에 대한 아쉬움보다 새로 시작될 오늘의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글. 권혜리 / 사진. 김규성>

애들아~ 우리 숨을 내기하자!

글. 권혜리 / 그림.이택중









* 숨을내기(북한말) = 숨바꼭질(남한말)



장맛비 오는 날엔 '감자 뜨더국' 드세요!

남한에서 비 오는 날 즐겨먹는 수제비를 북한에서는 '뜨더국'이라 부른다. 덩어리로 만든 반죽을 손으로 뜯어 냄비에 넣는 모양새에서 이름이 정해졌다. 뜨더국은 주로 밀가루로 반죽해 만들지만, 식량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강냉이 가루를 많이 사용했다. 함경도에서는 고추장을 국물에 풀어 진하게 끓여 먹고, 평안도에서는 소금과 간장으로만 간을 해 담백하게 즐겼다. 재료가 적어도 시원한 맛을 내고, 간단하게 반죽해 맛볼 수 있는 수제비 요리는 남북에서 모두 사랑받고 있다.

요리재료

밀가루 200g, 물 2/3컵, 감자 2개, 양파 1/2개, 애호박 1/3개, 대파 1대, 표고버섯 2개, 당근 1/4개, 다진 마늘 1작은 술, 감자전분 2큰술, 홍고추 1개, 소금 약간, 식용유 약간, 육수용 멸치, 다시마



요리방법



1 냄비에 물을 부은 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끓여 육수를 만든다.



2 밀가루에 물과 감자전분, 소금, 식용유를 조금씩 넣고 많이 치대 반죽한다. 완성된 반죽은 냉장고에 넣어 20분~1시간가량 휴지시킨다.





3 감자, 애호박, 대파, 표고버섯, 당근 등 준비한 채소를 먹기 편하게 썰어 준비한다.



4 국물이 우러나면 멸치와 다시마는 꺼내고, 감자를 넣어 끓여준다.



5 감자가 어느 정도 익으면, 반죽을 손으로 뜯어 넣고 끓여주며 떼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6 반죽이 떼오를 때쯤 준비한 채소를 넣고 한소끔 더 끓여주면 완성.

〈글.사진 / 요리연구가 박민지〉

뜨더국은 가난의 상징?

북한에서 뜨더국을 가장 많이 먹었던 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다. 중국에서 수입해 온 밀가루로 국을 끓여 쌀밥을 대신한 것. 남한에서도 전쟁 직후 어렵던 시기에 서민들이 즐겨먹던 음식이 바로 수제비다. 미국에서 지원된 밀가루를 국물에 불려 끼니를 해결했다. 지금의 수제비는 해물과 각종 채소가 첨가돼 깊은 맛을 자랑하지만, 남북 모두 어렵던 시절에는 소금과 밀가루만 넣은 수제비로 주린 배를 채웠다.

재밌는 것은 불과 100여 년 전 조선시대에는 수제비가 귀족들만 즐기는 귀한 음식이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수제비는 '운두병(雲頭餅)'이라고 불렸는데, 당시 밀가루가 귀해 서민들은 맛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가정의 달, 가족과 만날 수 없는 탈북민들을 위해' 당선작

탈북민분들의 남한사회 정착이 '통일의 지름길'

제임스유

저는 군 복무를 오두산 전망대 근방에서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리고 연말연시마다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고향땅을 좀 더 지척에서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많은 실향민들이 전망대로 찾아오시고는 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 명절에 다른 분들과 달리 이곳을 찾아야만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남한에 잘 정착하고 주위에 함께 하시는 이웃,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시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지금 하시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통일이란 건 누구 하나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통일을 위한 작은 마음들을 모으고 조화를 시켜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자신의 힘이 밑받침이 되고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충실히 임한다면 꿈에도 바라던 통일의 기쁨과 감격의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힘차게 가슴을 펴고 '화이팅'을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이산의 아픔 공감, 통일을 염원합니다!

김희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과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더욱 애절하실 실향민 어르신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어려서부터 통일 한국을 염원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분단된 채로 남아있는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슬픔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진데,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가보질 못하고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은 더욱 아프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가족들을 만날 희망을 잃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통일된 한국에서 그동안의 기다림을 충분히 보상받으실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북관계가 긴장될 때마다 젊은 장병들의 희생과 경제적 피해 등이 늘 동반되곤 합니다. 이러한 긴장 상황의 스트레스는 장병들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왔다고 봅니다. 통일한국을 우리 세대에선 꼭 이뤄서 후대에겐 평화의 국가를 물려줘야 합니다. 온 국민이 실향민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통일을 함께 염원하고 응원합니다.

'어버이날, 북녘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당선작

북에 두고 온 아들과 재회할 날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무치도록 그리운 사랑하는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느냐. 6살 어린 너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엄마를 많이 원망했으리라 본다. 돈 벌어 가지고 들어가다 두 번이나 붙잡혀 인간 이하의 곤욕을 치르고 소금 한 줌 넣고 떠난 것이 어언 십 년이 넘었구나. 네 또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를 떠올리며 상상을 해본단다. 우리 아들은 얼마나 자랐을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좋아할까? 궁금투성이란다. 날마다 어릴 적 네 사진을 들여다보며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단다. 너와 헤어진 그 날부터 지금까지 엄마도 수없이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일편단심 우리 아들을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며 지금까지 버텼단다. 암 수술과 뒤따른 세 번의 수술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단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고 우리 서로 왕래하며 만날 날을 위해 이 엄마는 오늘도 한 몸을 태우는 촛불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아들 앞에 뒤흔 엄마가 되기 위해 뛰고 또 뛴단다. 사랑하는 내 분신 같은 아들이, 부디 건강히 잘 있거라. 멀지 않은 어느 날 평화통일이 되어 너와 내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엄마가.

※ '천하'님의 글은 이전 호 웹진에 중복 게재된 글이어서 당선이 취소됐습니다.

e-행복한통일

검색하고 간식 먹고!

'e-행복한통일' 웹진을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검색해 찾은 뒤 인증샷(캡처 혹은 스크린샷)을 보내주시면 그 중 50명을 추첨, 편의점 음료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가장 많은 인증샷을 올리신 분 중 한 분께는 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드려요~ 단, 웹진 블로그나 카페가 아닌

웹진(webzine.nuac.go.kr)을 검색해주세요!



- 응모기간 : 2016.07.07 ~ 2016.07.31
- 응모방법 : [파일첨부] 버튼을 눌러 첨부 하거나 카카오톡(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51명
- 시상내역 : 편의점 음료교환권 50명, 문화상품권 3만원권 1명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북한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드라마, 영화, 음악은?



북한에서도 요즘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K-Pop을 듣는대지요?
물론 몰래 보는 것이긴 하지만
방영한 지 얼마 안 된 최신 드라마들도 본다고 해요~
게다가 단체 회식 때 남한 가요를 부르는 사람들은 인기도 짱이러지요^^
여러분들은 북한 친구들에게 남한의 어떤
문화컨텐츠(드라마, 영화, 음악)를 소개해주고 싶은가요?
제목을 쓰고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 응모기간 : 2016.07.07 ~ 2016.07.31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ID: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3명
- 시상내역 : 문화상품권(2만 원권)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영웅들에게 편지쓰기' 이벤트

| 번호 | 이메일 주소 | 닉네임 |
|----|---------------------|-----|
| 1 | ladywls@daum.net | 홍예진 |
| 2 | noranijoa@yahoo.com | 별빛 |
| 3 | ksjung605@naver.com | 정도령 |

'SNS통일염원' 이벤트

| 번호 | 이메일 주소 | 닉네임 |
|----|--------------------------|--------|
| 1 | beat4773@naver.com | 복나르샤 |
| 2 | mee215@naver.com | 강단애미 |
| 3 | son9447@naver.com | 윤쓰마미 |
| 4 | poteto1030@naver.com | 호박고구마 |
| 5 | winkek00@gmail.com | 예고구 |
| 6 | ladywls@daum.net | 홍예진 |
| 7 | lovehm84@naver.com | 통일대박 |
| 8 | dkdlfdkffoa@hanmail.net | 아이리알 |
| 9 | jasmincandy@daum.net | 자스민 |
| 10 | mrk9108@naver.com | 행복할꺼야 |
| 11 | jeonghc72@naver.com | 최경애 |
| 12 | hum0410@naver.com | 한정화 |
| 13 | tksthddl66@naver.com | 산송이 |
| 14 | oranicsservice@naver.com | 오가닉부자 |
| 15 | asefaa@naver.com | 미나리 |
| 16 | kimbob004@nate.com | 삼각김밥 |
| 17 | kimyh6700@hanmail.net | 김용현 |
| 18 | ckfoodstyle@naver.com | 소문난맛부자 |

| | | |
|----|-------------------------|--------|
| 19 | cjstk1004@naver.com | 조영준 |
| 20 | wkwmdsksek@naver.com | 고양이세수 |
| 21 | fjksfjls@hotmail.com | 함냐함냐 |
| 22 | hoowu@naver.com | 후니훈 |
| 23 | hyesukangel@hanmail.net | 통일바라기 |
| 24 | hs3185@hanmail.net | 핑퐁홀릭 |
| 25 | ej2898@nate.com | 김은정 |
| 26 | kkd@hanmail.net | 김연아 |
| 27 | reyroh@kornu.ac.kr | 아기호랑이 |
| 28 | asd785236@naver.com | 마이너스통장 |
| 29 | artboard76@hanmail.net | 통일바라기 |
| 30 | aaawayyy@nate.com | 취파하람 |

 '웹진 만족도 조사(email)' 이벤트

| 번호 | 휴대폰 번호 | 번호 | 휴대폰 번호 |
|----|---------------|----|---------------|
| 1 | 011022201979 | 9 | 010-9043-9148 |
| 2 | 010-2073-0915 | 10 | 010-3825-6979 |
| 3 | 010-3113-2858 | 11 | 010-5212-9730 |
| 4 | 010-2718-6473 | 12 | 010-5396-1833 |
| 5 | 010-3709-7195 | 13 | 010-7713-7962 |
| 6 | 010-2418-7317 | 14 | 010-3113-2858 |
| 7 | 010-2750-7091 | 15 | 010-4850-4437 |
| 8 | 010-9318-4922 | | |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